

특질유사성 측정방법이 특질의 지각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송 관 재 · 이 훈 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특질들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한 두가지 방법 즉 질문지를 통한 특질추론방법과 실험을 통한 특질분류방법에 따라 특질들간의 지각된 인지적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사용된 특질은 30개로서 피험자 459명에게 특정집단을 묘사할때 사용하는 형용사를 적게 한 다음 이 자유반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특질들이었다. 특질들간의 유사성은 피험자 786명(남: 420명, 여: 384명)에게는 특질 30개 각각을 쌍으로 제시하여 측정하였고(특질추론과제), 피험자 32명(남: 22명, 여: 10명)에게는 실험실에서 특질분류방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유사성 자료 각각이 어떠한 하위유형으로 묶여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두가지 유사성 측정치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피험자들이 특질의 공발생에 대한 판단을 할때 특질추론과제에서는 기억에 근거한 특질들간의 개념적 유사성에 의존하여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질 분류과제에서는 온라인평정을 함으로써 실제 행동의 공발생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성격특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느끼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지각하고 판단을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나 정서 및 의도를 지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사회적 지각(social perception)이라고 한다. 사회적 지각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언하는데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인지적인 접근을 강조하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과정 및 메카니즘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며, 지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들에 대한 행동 및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

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지각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 지각에 있어서 특질의 역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각할때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러한 사회적 지각과정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은 특질개념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보면 자유반응 형식으로 사람들에게서 서로를 묘사하라고 한 경우 그들이 묘사한 내용 중 65%가 특질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예언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특징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성격연구자들도 성격을 연구할때

특질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행동에 깔려 있는 것이 성격에 있는 안정된 기질이라는 가정때문이었다. 어떤 사람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공격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질은 대인지각에 있어서도 이론적 개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Asch(1946)는 사람들의 다양한 특징이 하나의 일관된 인상으로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를 살펴봐왔는데 그의 설명에서도 특질들의 세트나 인상을 특질로 개념화 하였다. 또한 Heider(1958)가 제안한 귀인파라다임도 사람들이 안정된 기질이나 특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귀인하는가를 다루었는데 그의 이론적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의 정신적표상에 있어서 특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폭넓게 관찰된 현상으로서 기본적인 귀인적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al error)는 보통 사람들은 행동의 원인으로서 성격특질을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황의 효과를 무시한다고 가정한다(Jones, 1979). 이러한 가정이 갖는 의미는 실제 행동이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깔려있는 안정된 기질에 귀인하려는 경향성을 일반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귀인 오류는 단지 일부분의 정보만 주어져있을 때 더 적은 오류를 범하려고 하거나, 실제 행동 비율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같은 발견법에 기초하여 추론을 하려는 사람들의 경향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Kahneman & Tversky, 1973). Cantor와 Mischel(1979)의 연구에 있어서도 특질은 다른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조직하기 위해 사용하는 추상적인 개념적 범주라고 하였다.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특질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지각자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언하려고 하거나 인상을 형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질을 많이 사용한다(Hoffman, Mischel & Mazze, 1981). 인상이란 "다른사람에 대한 지각자의 조직화된 인지적 표상"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Hamilton, Katz, & Leirer, 1980). 최근의 연구자들은 지각자에게 유용한 자극정보로부터 그러한 표상이 발달하는데 포함되어 있는 인지적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인상을 지각자의 조직화된 인지적 표상으로 보는 견해는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 지각

자가 표적인물에 대해 일관된 표상을 형성하기 위해 표적인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조직화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지각자가 표적인물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함에 따라 부호화된 정보들이 조직화되어지고 그것은 표적인물에 대한 지각자의 축적된 지식을 나타내는 인지적 구조로 기억에 표상되어진다는 것이다. 표적인물에 대한 지각자의 이후 판단에 기초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지적 표상인 것이다(Lingle, Geva, Ostrom, Leippe와 Baumgarder, 1979). 그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설명중에 하나가 Hastie와 Kumar(1979) 등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Anderson의 Human Associative Memory(HAM) 이론에 의해 발전된 가설적인 연결망 구조(network structure)의 형성에 관한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연결망을 나타내는 정신적 구조는 마디(node)개념과 연합적 고리(links)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구조의 제일 위에 있는 수준에서는 이름과 같이 사람의 확인할수 있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의 두번째 수준은 다른 사람을 묘사하거나 그들에 대한 정보를 조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질개념으로서 대상을 묘사하거나 그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조직하는 개념이다. 구조의 제일 밑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들의 예들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행동기술들이다. 이러한 접근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가정은 사람들에게 대한 행동정보는 특질범주로 분류되어지며 이러한 특질범주는 사람의 안정된 기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행동을 특질로 부호화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인상형성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실들이 기억에서 어떻게 조직되어지는가에 대한 Hastie 등(1979)의 설명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러므로 특질은 지각자가 사람에게 적절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접하게 될때 개념들을 조직하기 위해 가능하다. 따라서 Hastie 등의 이론에서는 특질을 사람들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와 다른 것도 있다. 그것은 특질을 사건범주(event category)로서 간주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적절한 여러가지 정보를 접할수 있는 상황은 실제 장면에서는 드문일이다.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실험에서 처럼 다양한(multitudes) 행동기술문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대신 실제 상황에서는 아주 단편적인 행동기술문만을 제공받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특질은 행위자를 묘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특질이 표적에 대해 유용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특질은 행위자에 대해 귀인을 하지 않고도 행동을 해석하고 분류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것은 특질이 사람을 묘사하기 보다는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작용하는 경우이다.

사람들이 특정한 대상이나 사회적 집단에 대해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한 연구들에서도 성격특질형용사를 많이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기본입장은 고정관념을 집단의 지각과 관련된 가설적인 인지적 구조라고 간주한다. 그러한 인지적 구조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특질개념을 많이 사용하였다. 특질을 사용하여 고정관념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는 Katz와 Braly(193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84개의 특질형용사를 피험자에게 주고 열개의 인종집단의 대표적 특성을 나타내는 특질을 지적하도록 하여 사람들이 각 인종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측정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피험자로 하여금 특정한 집단에 가장 전형적인(most typical) 다섯가지 특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다. Katz 등은 피험자들이 특정집단에 전형적인 것으로 선택한 특질들에 대한 피험자들의 합의(agreement) 정도를 고정관념으로 보았다. Gardner 등(1972)은 양분적(bipolar)인 특질척도를 피험자들에게 제시해주고 특정 집단을 평가하게 한 다음 집단들간의 평가차이로 고정관념을 살펴보았다. 또한 Brigham(1971)은 피험자들에게 특질을 제시해준 다음 특정집단의 구성원이 각 특질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추정하게 한 다음 집단구성원들이 갖고 있다고 추정한 퍼센트측정치로 고정관념을 살펴 보았다. 질문지에 특질개념을 포함하여 고정관념을 살펴본 연구들은 집단수준 즉 여러 피험자들간의 합의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현성격이론에 관한 연구

사람들은 표적인물에 대한 기술문을 제공받게 되면 표적인물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특징이나 특질에 기초하여 인상을 형성한다. 이후 그 표적에 대한 추론이나 판단은 특징이나 특질에 근거하여 형성된 인상에서 기초하여 이루어진다(Asch, 1946). 즉 사람들의 표적에 대한 추론은 표적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인상을 형성한 다음 그 인상에서 근거하여 추론을 하는 두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추론을 할때 형성된 인상에서 기초하지 않고 표적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부터 직접적으로 추론을 하기도 한다(Bruner, Tagiuri, 1954). 즉 특정한 단서에 기초하여 표적에 대한 추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차갑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불친절하거나 공격적일 것이라고 추론을 한다. 사람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징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나 다른사람으로부터 지각하는 특질들사이의 관계는 흔히 개인의 내현성격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y)으로서 언급되어졌다. 내현성격이론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개인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성격의 속성이나 기대된 관계(추론된 관계)의 세트(set)를 포함하는 가설적인 인지적 구조를 의미한다(Zebrowitz, 1990). 성격에 대한 이러한 조직화된 지식이 자신에 관한 것일때 자기도식(self-schema)이라 하며, 사람을 심리적으로 집단화할때는 사람유형(person type)이라 하고,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일때 고정관념(stereotype)이라고 한다. 개인이 어떠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내현성격이론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상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한 특질을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다른 특질들을 추론해 낼 수 있다.

내현성격이론가들은 사람들의 성격에 깔려 있는 가설적인 인지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여 왔다. 내현성격이론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내현성격이론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Cantor와 Mischel(1977)의 연

구에서 피험자들에게 표적의 여러가지 특징들을 제시해 준 다음 재인과제를 실시하였을때 피험자들은 표적의 여러가지 정보중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적에 대한 내현 성격이론에 맞는 정보를 더 잘 회상하였다.

내현성격이론가들은 특징들 사이의 내현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왔다.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특징들간의 상관에 기초한 요인분석 방법이다. 요인분석 방법은 초기의 성격특질연구자들이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특징들의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Cattell(1946)은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보다는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는 피험자들에게 여러가지 특징들을 제시해 주고 각 특징에 대한 평정 점수들간의 상관을 기초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Cattell은 16가지의 성격의 기본적인 요소 즉 차원을 밝혀내었다. Norman(1963)은 양분적인 척도(좋다-싫다, 지적이다-어리석다)를 사용하여 지각된 특징들에 깔려 있는 독립적인 차원을 알아 보았다. 성격구조를 살펴보는 연구들에서 양분적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Kelly(1955)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Kelly는 사건을 해석하거나 예언하는데 사용하는 인지적 구조로서 개인적 구성개념(personal constructs)을 언급하였는데 그러한 개인적 구성개념이 양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요인분석 결과 다섯가지의 비교적 독립적인 차원을 확인하였다. 다섯가지의 요인은 외향성(extraversion), 협의성(agreeableness), 양심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문화(culture) 등이었다. 이러한 차원에 대한 설명은 두개의 특징이 똑같은 요인에 속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각된 사람은 다른 하나의 특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분석방법은 특징들간의 상관에 기초하여 분석을 한다. 이러한 상관자료는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상관이란 자극들 사이의 대칭적인(symmetrical) 측면을 나타내는 반면 특징추론은 상당히 비대칭적인(asymmetrical)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Warr, Knapper, 1968). 예를 들어 상관메트릭스의 경우 대각선의 밑에 있는 상관과 위에 있

는 상관은 일치한다. 이는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하며 역으로 B가 증가해도 A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징추론의 경우 한 개인의 A라는 어떤 특징을 알고 있는 경우 B라는 다른 한 특징을 추론해 낼 수는 있으나 B라는 특징을 알고 있는 경우 A라는 특징을 추론해 내지는 않는다. 둘째, 상관측정은 추론가치에 개인차가 있을때만 영(zero)이 안되기 때문에 만족스런 집단평균가치(group average value)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상관계수의 기초가 되는 것은 각 변인에 대한 개인의 편차정도이다. 이것은 각각의 특징에 대한 개인의 평정이 집단평균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편차점수가 영이면 상관계수도 영이 된다. 상관이 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마다 특징에 대한 추론이 차이가 나야 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개인마다 다른 평정이 이루어져야만 각 특징들간의 상관이 영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징추론의 경우 각 특징에 대한 추론 가치에 있어서 반드시 개인차를 가질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특징들간의 유사성 자료로서 상관을 사용하기 보다는 특징들간의 프로파일 거리(profile distance)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분석적 방법으로는 어떤 차원에 속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 수는 있으나 실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어떠한 특징의 공발생을 지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 즉 다른 한개인이 어떠한 성격특징들을 함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 따라서 내현성격이론에서는 특징들간의 인지적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다차원 척도분석(multidimensional analysis)이나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많이 사용한다.

다차원척도분석(MDS)은 성격의 다차원적 구조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서 특징들 각각의 심리적 관련성에 기초하여 특징들간의 관계를 공간상으로 나타내주는 방법이다. 이 분석의 기본적인 특징은 특징들간의 관계를 공간상으로 나타내 준다는 것이다. 특징들간의 상이지수를 기초로 최초의 형상을 만들어 내고 반복적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공간상의 거리가 가능한 한 본래의 근접성을 잘 나타내도록 오차(stress)를 줄여 나가면서 최종해를 구하게 된다. 상이지수에 기초하여 최초의 형상을 결정짓고 이로부터 도출된 공간에서의

거리를 계산하고 원래의 근접값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오차가 크면 좌표를 이동시키고 도출된 공간에서의 거리를 다시 계산하게 된다. 이 작업은 도출된 거리가 원 자료에 적합할때까지 반복한다. 오차의 크기는 도출된 거리가 본래의 자료에 어느정도 잘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MDS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차원의 수는 2-5차원 까지이며(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차원의 수를 높이면 오차의 값은 감소한다. 그러나 고차원의 해가 반드시 구조를 찾아내는데 최선의 것이라 말할 수 없다. MDS에서 공간에 대한 해석은 요인분석에서 구해진 요인에 대한 명칭부여가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연구자의 결정사항이다.

군집분석은 일정한 숫자의 특질들이 여러가지 계량화된 방식으로 측정되어 묘사되어져 있을때 이들 특질들을 범주화하여 한 범주내의 특질들은 가급적 서로 비슷하도록 하고 다른 범주에 속한 특질들은 가급적 서로 다르도록 하는 분류체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Everitt, 1980). 따라서 조사된 각각의 특질들이 어떠한 구성적 관계(configuration relationship)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는 각각의 특질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유사성 자료 행렬표(matrix)이다. 특질들간의 유사성은 한 개인이 각각의 특질들을 같이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사성을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카드분류방법(card sorting method)이다. 이 방법은 피험자들에게 특질형용사가 적힌 일련의 카드를 제시해 주고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특질들을 서로 같은 박스에 담게 하는 방법이다. 같은 사람에게 할당된 특질들은 서로 심리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질들간의 심리적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카드분류방법은 피험자를 실험실에 데려와서 개별적으로 실험적 절차를 통해 측정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많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특질들간의 관련성을 측정하기도 한다. 그 대안적인 방법은 연구에 포함된 모든 특질들을 쌍으로 제시하고 피험자로 하여금 쌍으로 제시된 특질을 피험자 자신이 생

각하는 어떤 사람이 같이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한 두가지 방법 즉 실험적 방법인 카드분류과제와 질문지를 통한 특질추론과제는 특질들간의 유사성을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가지 방법이 피험자에게 똑같은 정보처리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카드분류과제의 경우 피험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회상해 낸 다음 그 사람에 대해 온라인 평정을 하게 되는 반면 특질추론과제에서는 기억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 행동의 온라인 평정에 비해 척도에 있는 항목들 사이의 개념적 연합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내현성격이론의 타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추론하는 성격특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지 관찰자의 마음에 있는 인위물(artifacts)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특질들의 인지적 구조가 실제 행동의 구조를 반영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확성 반영가설(accurate reflection hypothesis)은 성격구조에 대한 사람들의 직관은 실제 세계에서 행동이나 특질들의 공발생에 대한 관찰에서 온다고 주장한다(Passini and Norman, 1966; Block et al., 1979). 그러나 다른 해석도 있다. 그것은 Shweder(1975, 1977)와 D'Andrade(1965, 1974)가 주장한 체계적 왜곡가설(systematic distortion hypothesis)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특질은 관찰자의 마음에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관찰자는 실제로는 그러한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행동에 어미적(semantic) 구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관찰자는 행동범주들 사이의 실제 경험적 관계보다는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이나 유사성 발견법(similarity heuristic)을 사용한다. 성격에 적절한 사건에 대한 기억은 태도나 감정, 행동들이 개념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편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격에 대한 추론은 '무엇이 무엇과 함께 간다(what goes with what)'에 대한 가정이 '무엇이 무엇과 같다(what is like what)'에 대한 가정으로 대체되어 진다. 따라서 기억에 근거한 특질평정은 실제 행동의 공발생을 반영하기 보다는 특질들간의 개념적 혹은 어미적 유사성을 반영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질추론과제와 특질분류과제를 통해 측정된 유사성 자료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특질선정

특질형용사로 된 형용사검목표(adjective checklist)를 사용하여 내향성격이론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형용사검목표에 어떠한 형용사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자 자신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형용사를 살펴보고 자신의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를 선택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용사검목표에 어떠한 형용사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형용사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형용사 선택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에 분석하여 사람들의 성격특질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형용사를 골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상을 묘사할때 쓰는 형용사를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여 이 자유반응에서 사용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형용사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차이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언어로 부호화되어 진다(Goldberg, 1982). 따라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대표적인 특질형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묘사할때 사용하는 형용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자유반응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묘사하거나 평가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질선정을 위한 사전연구에서는 서울시내 Y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 459명(남: 213명, 여: 246명)을 피험자로 사용하였다. 이들 대학생들에게 빈 용지를 한장씩 주고 난 다음,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묘사할때 사용하는 형용사를 5개씩 적게 하였다. 피험자를 두집단으로 나누어 피험자들중 331명에게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묘사할때 사용하는 형용사를 적게 하였고, 128명에게는 특정집단을 묘사할때 사용

하는 형용사를 적게 하였다. 이때 특정대상집단은 교수 집단과 학생(동료) 집단이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묘사할때 사용하는 형용사를 빈도순으로 나타내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자유반응에서 나타난 형용사 빈도

특 질	빈도	특 질	빈도	특 질	빈도
귀여운	136	뽕기는	23	온화한	13
예쁜	127	재미있는	23	이상한	13
착한	127	좋은	23	편한	13
멋있는	115	대단한	22	알미운	12
괜찮은	85	멍청한	22	지적인	12
성실한	66	편안한	20	뿔뿔한	11
친절한	57	매력적인	19	상큼한	11
아름다운	47	더러운	18	서글서글한	11
상냥한	40	인간적인	18	싸가지없는	11
사랑스러운	36	차가운	17	야한	11
재수없는	34	친근한	17	암전한	11
따뜻한	33	똑똑한	16	우아한	11
순수한	29	쫄쫄한	16	활달한	11
압살한	28	명랑한	15	근면한	10
믿음직한	27	섹시한	15	생각이깊은	10
깔끔한	26	짜증나는	15	섬박한	10
치사한	26	차분한	15	예리한	10
깨끗한	25	날카로운	14	웃기는	10
멋진	25	이기적인	14	정직한	10
부드러운	25	자상한	14	죽이는	10

이러한 자유반응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묘사할때 성격특질을 묘사하는 형용사보다는 신체적이거나 외형적인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용사빈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귀여운' '예쁜' 과 같은 형용사들이었으며 전체 빈도순에서 '멋있는' '아름다운' '멋진'과 같은 형용사가 많이 사용된 것을 보면 대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묘사할때 외형적인 면을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각할때 가설적으로 조직된 그림과 같은 표상(picture-like representation)으로 정의되어진 사람유형(person type)으로 사람을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가장 많이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이 결과를 미국대학생을 대상으로한 Rosenberg 등(1972)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intelligent' 'friendly' 'hard worker' 'helpful' 'honest' 등이 사용빈도가 높은 형용사로 나타났다.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착한' '괜찮은' '성실한' '친절한' '상냥한' 등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생들이 가

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형용사는 'intelligent'인데 반해 한국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용사는 '착한'이었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험자들중 128명에게는 특정집단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를 기술하게 하였다. 표적집단을 선정할 이유는 집단지각에 있어서 표적의 효과(target effect)가 있기 때문에 표적 집단이 무엇이나에 따라 피험자가 사용하는 특징들이 달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었다(Zebrowitz, 1990). 이때 선정한 대상집단은 교수집단과 학생(동료)집단이었는데 피험자들이 모두 대학생들이고 그들이 주로 접하는 사람들이 동료학생들이나 교수들이기 때문에 두집

<표 2> 표적집단에 대해 나타난 특징빈도

좋아하는 교수		싫어하는 교수		좋아하는 학생		싫어하는 학생	
특 질	빈도	특 질	빈도	특 질	빈도	특 질	빈도
성실한	25	권위적인	51	착한	24	이기적인	41
이해심이많은	19	부정적인	30	성실한	16	잘난체하는	25
관대한	17	까다로운	18	적극적인	15	까다로운	14
자상한	15	잘난체하는	18	관대한	14	자기중심적인	10
인자한	14	간간한	17	따뜻한	14	소심한	9
개방적인	13	불성실한	13	이해심있는	14	신경질적인	9
인간적인	13	이기적인	11	솔직한	10	차가운	9
유머가있는	12	존존한	11	차분한	10	충동적인	9
재미있는	11	신경질적인	10	친절한	10	치사한	9
학구적인	10	치사한	10	너그러운	9	고집이센	8
겸손한	8	융통성없는	8	세심한	9	보수적인	8
박식한	8	지루한	8	순수한	7	답답한	7
열성적인	8	소심한	7	재미있는	7	불성실한	7
부드러운	7	자기중심적인	7	활발한	6	우유부단한	7
온화한	7	이해심이없는	6	다정한	5	무책임한	6
자신감이있는	7	고집이센	5	명량한	5	짜증나는	6
똑똑한	6	감정적인	4	믿음직한	5	존존한	6
솔직한	6	게으른	4	부드러운	5	게으른	5
융통성이있는	6	꼭박힌	4	생각이깊은	5	권위적인	5
적극적인	6	독단적인	4	정직한	5	소극적인	4
지적인	6	무관심한	4	진지한	5	책임감없는	4
진보적인	6	무식한	4	편안한	5	피곤한	4
친절한	6	매책한	4	결손한	4	과격한	3
포용력이있는	6	가식적인	3	괜찮은	4	냉정한	3

단을 선정하였다. 피험자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교수나 자신이 싫어하는 교수들이 갖고 있는 특질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학생이나 자신이 싫어하는 학생이 갖고 있는 특질을 각각 5개씩 적게 하였다. 피험자의 반에게는 표적을 학생으로 하였고, 다른 반에게는 표적을 교수로 하였다. 이때 신체적이거나 외형적인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사용하지 말고 성격특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만을 적게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수가 갖고 있는 특질은 '성실한' '이해심이 많은' '관대한' '자상한' '인자한' '개방적인' '인간적인' '유머가 있는' 등이었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교수들이 갖고 있는 성격특질은 '권위적인' '보수적인' '까다로운' '잘난척 하는' '간간한' '불성실한' '이기적인' 등이었다.

대상집단이 학생인 경우 '착한' '성실한' '적극적인' '관대한' '따뜻한' '이해심이 있는' 등의 특질을 갖고 있는 학생(동료)를 좋아하였으며, '이기적인' '잘난척하는' '까다로운' '자기중심적인' '소심한' '신경질적인' '차가운' 등의 특질을 갖고 있는 학생(동료)은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먼저 일차적으로 묘사빈도가 높았던 특질 100개를 선정하였으며 이차로 그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특질 30개를 다시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30개의 특질들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피험자

서울시내 Y대학교와 K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학생 8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중 786명(남: 402명, 여: 384명)에게는 특질추론과제를 실시하여 특질들간의 유사성자료를 측정하였고, 32명(남: 22명, 여: 10명)에게는 특질분류과제를 주어 특질들간의 유사성을 측정하였다.

특질추론과제

특질추론과제에서는 피험자들을 세집단으로 나누어 30개의 특질들의 쌍 435개를 3등분하여 제시하였다. 특질들의 쌍을 제시해준 다음 피험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그사람이 쌍으로 제시된 두개의 특질을 같이 갖고 있다면 그렇다에 같이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에 표시하게 하였다. 이때 사용된 척

도는 7점 척도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두개의 특질을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각 특질들 쌍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을 모두 합하여 특질들간의 유사성 행렬표를 만들었다.

특질분류과제

특질분류과제에서 피험자들은 30장의 카드를 제시받게 되는데 각각의 카드에는 하나의 특질이 적혀 있다. 피험자앞에 카드를 나열해 놓은 다음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주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묘사할때에 특질형용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묘사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특질형용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할 일은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특질들을 하나로 묶어 박스에 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쉽게하는 방법은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친구나 선후배 및 교수)을 생각해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특질들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하나의 특질은 어떤 한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한번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생각하되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을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정히 어떤 사람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특질은 따로 분류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가능하면 모든 특질들 다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지시문을 받은 다음 피험자들은 특질들을 박스로 분류하게 된다. 한번 분류한 특질을 다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다시 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제에서 피험자들이 주로 분류한 범주의 수는 3개-8개의 사이였다. 특질분류과제에서 나온 자료는 특질들간의 유사성측정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실제로 군집분석에서 사용되어지는 자료가 특질들간의 비유사성 측정치이기 때문에 특질들간의 비유사성 정도가 계산되었다. 어떤 두 특질들 사이의 비유사성 정도 즉 불일치 점수(disagreement score)는 Rosenberg 등(1968)이 사용한 방법을 따라서 측정하였다. 두개의 특질을 다른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피험자의 수를 계산하여 불일치점수를 측정하였는데 만일 전체 피험자가 32명이고 어떤 두개의 특질들을 한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피험자의 수가 5명이면 그 두 특질들 사이의 불일치 점수는 27이 된다.

특질평정

특질추론과제를 수행하는 피험자들에게 30개의 특질을 제시하여 주고 각각의 특질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사용된 척도는 7점 척도였으며, 척도의 한쪽 끝에는 좋다는 뜻의 다른 한쪽 끝에는 나쁘다는 뜻을 넣었다. 각 특질에 대한 피험자들의 평정 평균은 군집분석에서 각 군집내의 특질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어졌다.

결 과

특질추론과제를 통해 측정된 유사성자료와 특질분류과제를 통해 측정된 유사성 자료 각각이 어떠한 하부 유형으로 묶여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질들을 군집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군집분석의 여러기법 가운데서 위계적군집방식(hierarchical clustering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각 특질을 차례로 보다 큰 군집으로 분류하여 마지막으로 모든 특질이 하나의 큰 군집을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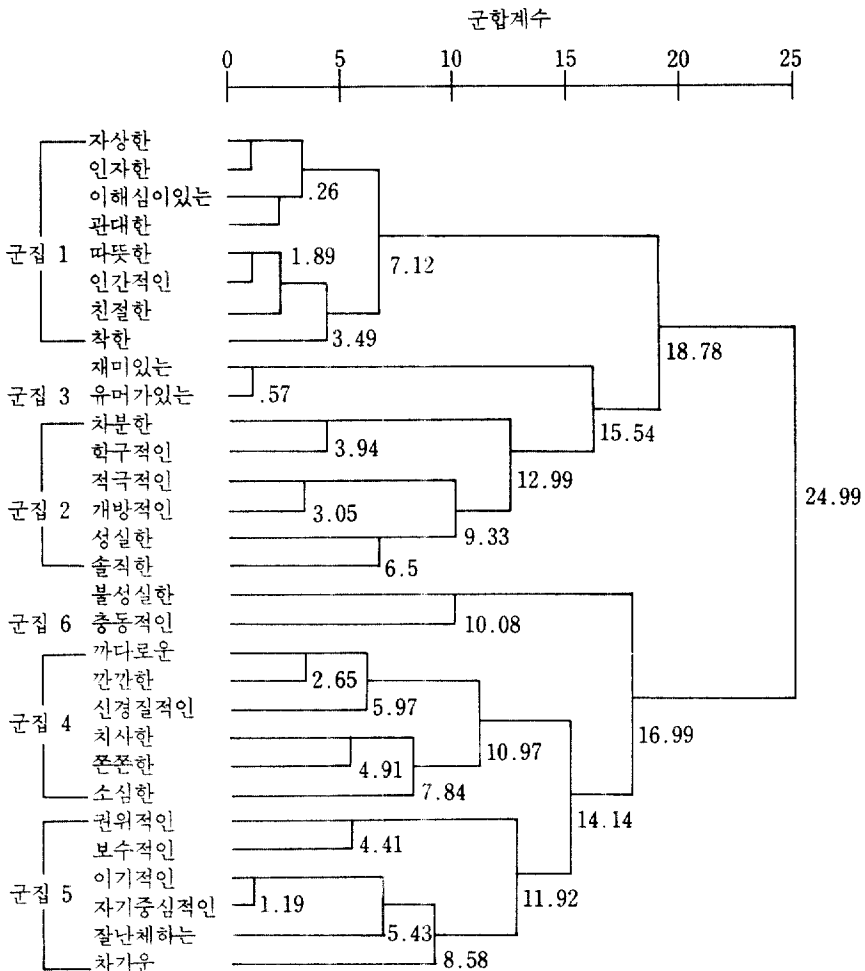


그림 1. 특질추론과제에서 나온 특질간 분류 수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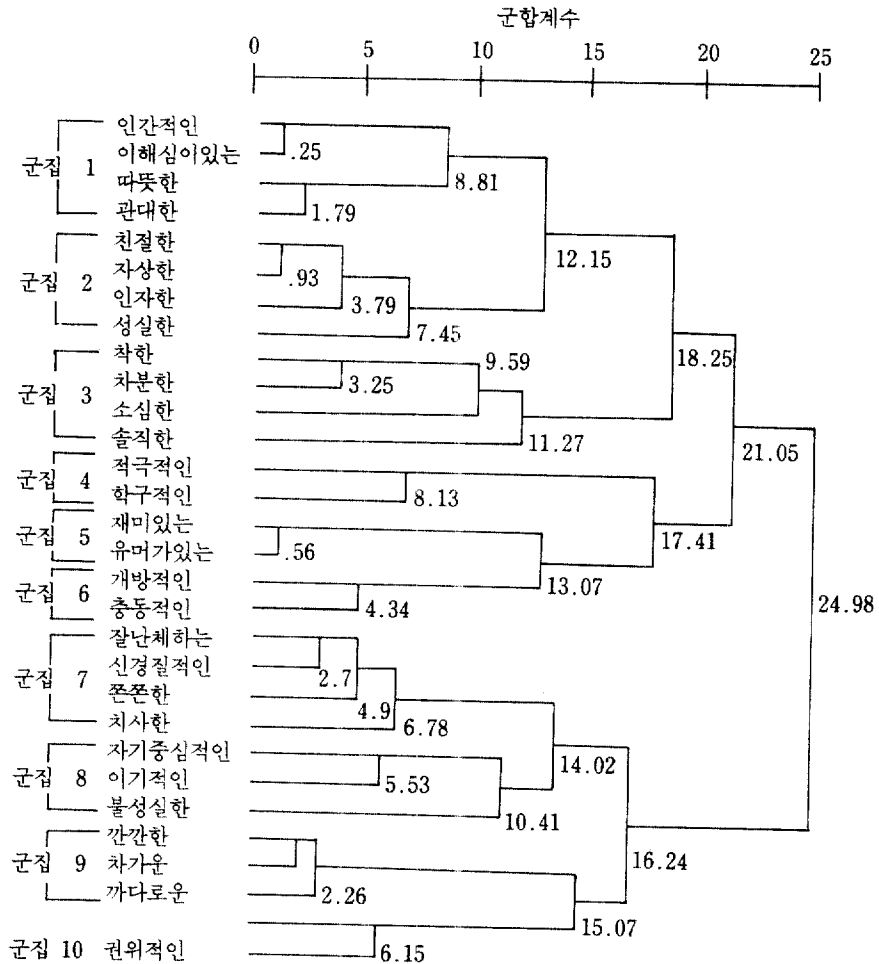


그림 2. 특질분류과제에서 나온 특질간 분류 수목표

도록 해나가는 방식이다. 군집화를 하는 방법으로는 와드의 방식(ward's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각 군집에 대해 모든 특질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다시 각 특질이 군집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유클리드 거리의 자승값을 계산한 다음 군집내 거리 자승의 합이 최소로 증가하는 두 군집을 합쳐나가는 방식이다 (Aldenderfer와 Blashfield, 1984).

군집분석의 결과를 수목표(dendrogram)의 형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수목표는 각각의 군집들이 어떻게 합쳐지며 그들이 합쳐질때 상이성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는 표이다. 그

림에 나타난 수치는 군집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상이성 수치이며, 만약 수치가 7.12이면 군집내의 특질들사이의 최대거리리는 7.12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치가 보다 작을수록 군집간의 유사성이 높다고 할수 있다. 연구에 포함된 특질들을 몇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느냐 하는 기준에 대해서 군집분석에서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적합한 평가설이 있을수 없을뿐만 아니라 다변수 표집분포의 복잡성 때문이기도 하다(Aldenderfer와 Blashfield, 1984). 본 연구에서는 두 군집간의 합쳐지는 거리를 나타내는 군합계수에 기초하여 군집을 분류하였다. 군합계 수가 작은 경우

상대적으로 유사한 군집이 합쳐진다는 표시이고 군합계수가 크면 상대적으로 상이한 특질이 포함된 군집이 합쳐진다는 표시가 된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큰 계수값이 발견되는 곳을 군집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방법은 요인분석에서 필요한 요인의 갯수를 결정할때 사용하는 스크리 도표(scree diagram) 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먼저 특질추론과제에서의 유사성 측정치를 군집분석한 것인 그림 1을 살펴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두개의 큰 군집이 합쳐지고 있다. 하나는 16개의 특질(자상한에서 솔직한까지)로 구성된 군집이고, 다른 하나는 14개의 특질(불성실한에서 차가운까지)로 구성된 군집이다. 16개 특질의 군집은 다시 자상한에서 착한까지의 8개의 특질로 구성된 군집과 차분한에서 솔직한까지의 6개의 특질로 구성된 군집 및 나머지 2개의 특질로 구성된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14개 특질의 군집은 까다로운에서 소심한까지의 6개의 특질로 구성된 군집과 권위적인에서 차가운까지의 6개의 특질로 구성된 군집 및 나머지 2개의 특질로 구성된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때 연구에 포함된 30개의 특질들은 크게 4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덧붙여 별도의 2개 군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각각의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 특질들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특질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군집별로 특질 평정치의 평균을 살펴보았다(표 3). 군집 1에 포함되

어 있는 특질들은 '자상한' '인자한' '이해심이 있는' '관대한' '인간적인' '친절한' '착한' 등이었으며, 군집 2에 포함된 특질은 '차분한' '학구적인' '적극적인' '개방적인' '성실한' '솔직한' 등으로서 특질평정에서 모두 5점 이상을 받은 긍정적인 특질들이었다. 군집 3에 포함되어 있는 특질은 '까다로운' '간간한' '신경질적인' '치사한' '쑥쑥한' '소심한' 등이었으며, 군집 4에 포함된 특질은 '권위적인' '보수적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잘난체하는' '차가운' 등으로서 특질평정에서 모두 3점 이하의 평정을 받은 부정적인 특질들이었다. 각각의 군집을 특질평정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해본 결과 군집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3) = 131.952, P < .000$). 특히 두개의 큰 군집으로 나누어서 볼때 가장 큰 군집내의 하위군집들간(군집 1과 군집 2, 군집 4와 군집 5)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한 군집내의 하위군집과 다른 군집내의 하위군집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0$).

특질분류과제에서 나타난 결과를 그림 2에서 살펴보면 두개의 큰 군집이 마지막 단계에서 합쳐지고 있다. 하나는 인간적인에서 충동적인까지의 18개 특질로 구성된 군집이고 다른 하나는 잘난체하는에서 권위적인까지의 12개 특질로 구성된 군집이다. 이들 두개의 군집들은 군합계수에 기초하여 볼때 특질추론과제에서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군집들이 두개의 큰 군집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18개 특질로 구성된 군집은 2개 내지 3개의 특질로 구성된 군집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합계수에 기초하여 군집으로 나눈 경우 6개의 하위군집으로 나누어졌다. 12개 특질로 구성된 군집은 2개 내지 4개의 특질로 구성된 군집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하위군집으로 나누어졌다. 각 군집내의 특질들의 특성을 살펴보았을때 특질추론과제의 경우에는 두개의 큰 군집들이 모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특질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반해, 특질분류과제의 경우에는 '소심한' '충동적인'과 같은 부정적인 특질이 긍정적인 특질들과 함께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군집들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해본 결과 큰 두개 군집들내의 하위 군집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나의 큰 군집내의 하위군집과 다른 큰 군집내의 하위군집간에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즉 하나의 큰 군집에 속하는 군집 3, 4, 5, 6은 다른

〈표 3〉 군집별 특질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집	특질추론과제시	특질분류과제시
군집 1	6.34 (.17)	6.41 (.22)
군집 2	5.89 (.54)	6.40 (.19)
군집 3	5.93 (.18)	5.21 (.63)
군집 4	2.23 (.57)	5.74 (.60)
군집 5	2.51 (.61)	5.93 (.18)
군집 6	2.00 (.79)	3.96 (.98)
군집 7		1.84 (.36)
군집 8		1.87 (.42)
군집 9		2.81 (.30)
군집 10		2.85 (.75)

큰 군집에 속하는 군집 9, 10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군집 6은 다른 군집에 속해있는 군집들 모두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질분류과제의 경우 각각의 큰 군집내에 특질들이 서로 묶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유사성 측정치에 대한 피험자들간의 상관울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질추론과제의 경우에는 각 피험자간의 상관이 .4-.8의 분포를 이루고 있었는데 반해 특질분류과제의 경우에는 .1-.3의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특질추론과제의 경우에는 피험자들간의 유사성 측정치가 서로 유사한 반면 특질분류과제의 경우에는 피험자들이 특질의 공발생 지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논 의

특질추론과제와 특질분류과제를 통해 측정된 두가지 유사성 자료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통계적 검증방법은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으로 나타난 수목표에 기초하여 군집을 나눈 다음 각 군집내에 속해 있는 특질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두가지 유사성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두가지 유사성 측정치간에는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질추론과제의 경우에 특질들은 4개의 분명히 구분되는 군집으로 구성되어졌다. 이들 4개의 군집들 각각에 포함된 특질들도 모두 평가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평정을 받은 특질들이었다. 또한 가장 마지막으로 묶인 두개의 군집을 기준으로 볼때 군집들내의 하위군집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한 군집에 속한 하위군집과 다른 군집에 속한 하위군집끼리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질분류과제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두개의 군집이 합쳐지나 각 군집내의 하위군집들은 특질추론과제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군집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묶인 군집을 기준으로 할때 군집들내의 하위군집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 군집내의 하위군집과 다른 군집내의 하위군집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질추론과제와 특질분류과제가 피험자로 하여금 분명히 다른 정보처리를 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특질추론과제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피험자들은 특질의 평가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체계적 왜곡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피험자들이 특질추론과제에서 특질의 공발생에 대한 판단을 할때 특질들 각각을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기 보다는 특질들간의 개념적 유사성에 의존하려는 개인의 인지적 성향(cognitive propensity)이 작용하였고, 따라서 피험자들이 실제 행동의 공발생보다는 특질들의 어미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판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반면 특질분류과제에서 피험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억에 근거하기 보다는 온라인 평정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행동의 공발생을 더 많이 반영하였다. 특질분류과제의 결과에서 보듯이 피험자들간의 판단에는 차이가 많이 나타났고 그 결과 특질들이 군집으로 잘 묶이지 않았다. 실험과정에서 특이한 사실은 한 여자피험자의 경우 특질분류과제에서 '차가운'과 '따뜻한' 특질을 한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같은 상자에 담았다. 실험이 끝난 후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의 여자친구를 생각하였는데 그 친구는 같은 여자에게는 따뜻하게 대하나 남자들에게는 차갑게 대한다'고 대답하였다. D'Andrade(1965)와 Shweder(1975)가 특질분류방법을 사용하여 특질들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특질들간의 어미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그들 연구의 경우 피험자에게 남·여 성별주를 생각하게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단을 하게끔 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상은 온라인으로 형성되어지며 이러한 인상형성은 기억에 근거한 인상형성과는 다른 것이다.

내현성격이론가들은 어떤 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개인의 내현성격이론을 고정관념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고정관념을 측정할때 대개 특질행용사가 포함된 질문지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질문지 방법은 개념적 유사성 편파를 범하기 쉽다. 또한 어떤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경우 그 집단이 어떠한 것이라는 기억에 의존하는 것과 실제 그 집단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경우 사람들이 실제 행동의 공발생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측정할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특질들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측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군집분석에서 나온 군집들의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수 없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차원에 근거하여 특질들의 공발생을 지각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Aldenderfer, Mark and Roger Blashfield. (1984). *Cluster, analysis*. Beverly Hills: Sage.
- Asch, S.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Block, J., Weiss, D.S., & Thorne, A. (1979). How relevant is a semantic similarity interpretation of personality ra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863-872.
- Brigham, J.C. (1971). Ethnic stereotypes. *Psychological Bulletin*, 76, 15-38.
- Bruner, J.S., & Tagiuri, R. (1954). The perception of people. In G. Lindzey (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634-654). Cambridge, Ma: Addison-Wesley.
- Cantor, N., & Mischel, W. (1977). Traits as prototypes: Effects on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8-48.
- Cantor, N., & Mischel, W. (1979). Prototype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2, pp.3-52). New York: Academic Press.
- Cattell, R.B. (1946). *The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personality*. New York: World Book.
- D'Andrade, R.G. (1965). Trait psychology and componential analysis. *American anthropologist*, 67 (5, Pt. 2), 215-228.
- D'Andrade, R.G. (1974). Memory and the assessment of behavior. In H. M. Blalock. (Ed.), *Measurement in the social sciences*. Chicago: Aldine.
- Everitt, Brian. (1980). *Cluster analysis*. (2nd Ed.) London: Heinman Educational Books.
- Gardner, R.C., Kirby, D.M., Gorospe, F.H., & Villamin, A.C. (1972). Ethnic stereotypes: An alternative assessment technique, the stereotype differential.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7, 259-267.
- Goldberg, L.R. (1982). From ace to zombie: Some explorations in the Language of personality. In C.D. Spielberger & J.N. Butch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 1, pp. 203-234). Hillsdale, N. J. : Erlbaum.
- Hamilton, D.L., Katz, L.B., & Leirer, V.O. (1980). Organizational processes in impression formation. In R. Hastie, T. Ostrom, E. Ebbesen, R. Wyer, D. Hamilton, & D. Carlston (Eds.), *Person memory*.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stie, R., & Kumar, P.A. (1979). Person memory: Personality traits as organizing principles in memory for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 25-38.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offman, C., Mischel, W. and Mazze, K. (1981). The role of purpose in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bout behavior: Trait-based vs. goal-based categories in person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chology*, 40, 211-225.
- Jones, E.E. (1979). The rocky road from acts to dispositions. *American Psychologist*, 34, 107-117.
- Kahneman, D., & Tversky, A. (1973). On the psychology of prediction. *Psychological Reviews*, 80, 237-251.
- Katz, D., & Braly, K.W. (1933). Racial stereotypes of one hundr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8, 280-290.
- Kelly, G.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Norton.
- Lingle, J.H., & Geva, N., Ostrom, T.M., Leippe, M.P., & Baumgardner, M.H. (1979). Thematic effects of person judgments o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674-687.
- Norman, W.T. (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574-583.
- Passini, F.T., & Norman, W.T. (1966). A universal concep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44-49.
- Rosenberg, S., & Jones, R.A. (1972). A method for investigation and representing a person's implicit theory of personality: Theodore Dreiser's view of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 372-386.
-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 s. (196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83-294.
- Shweder, R.A. (1975). How relevant is an individual difference theory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43, 455-484.
- Shweder, R.A. (1977). Likeness and likelihood in everyday thought: Magical thinking in judgments about personality. *Current Anthropology*, 18, 637-658.
- Warr, P.B., & Knapper, C. (1968). *The perception of people and events*. London: Wiley.
- Zebrowitz, L.A. (1990). *Social perception*. Pacific Grove, CA: Brooks/Cole.

On the Differences of the Perceived Relationship among Traits : Trait Inference Method vs Trait Sorting Method

Kwan-Jae Song and Hoon-Ko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erceived relationships among traits measured by the two method, trait inference method and trait sorting method were contrasted. 30 trait adjectives were used in this study, which were the most frequent trait in the free-response descriptions when we asked students to describe target person. For 786 subjects(M : 420, F : 384), they were asked to judge each of the 435 pairs of 30 trait adjectives according to the trait co-occurrences. For 32 subjects(M : 22, F : 10), they were asked to sort trait adjectives into boxes, each box representing a different person. The two similarity data were used as input for clustering analysi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ethod measuring the similarity of traits was found in the resulting structur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When subjects were asked to judge for traits co-occurrences in traits inference task, their judgment was based on conceptual or semantic similarity. In trait sorting task, subject's judgment was reflected more the relationship actually observed in behavior.